티베트 불교미술, 중국·네팔 영향 받았다?

중국-티베트연구센터 교수
기존 인도불교 영향설 반박
돈황 시절 교역 따라 전수
"두루마리 형태 탕카 발전"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미술의 대표주자인 '탕카', 천이나 벽에 그려지는 불교회화다.
사진출처=레코드 차이나

티베트 불교미술에서 '탕카'라고 불리는 불교회화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새로운 학설이 제기됐다. 인도불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인도불교의 회화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 탕카의 기원에 대해 사실상 중국과 네팔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학설이 등장한 것이다. 9월 13일 중국의 '레코드 차이나'는 연구자들의 발표를 인용해 새로운 학설에 대해 보도했다.

8세기경 본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티베트는 당시 인도의 날란다 대학을 비롯해 인도 각지의 고승들을 초빙하고, 중국에서 온 선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불교의 계승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불교미술을 비롯한 문화적인 부분도 모두 인도불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연구돼 왔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저장대학교 중국-티베트 예술센터의 셰지셩(謝繼勝) 교수는 "티베트 불교미술은 단순히 1:1로 인도와 연결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중국과 네팔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셰 교수는 "티베트 불교미술이 벽화에서 시작되어 지금과 같이 두루마리 형태의 탕카로 발전한 것은 11세기 전후의 일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도 두루마리 그림의 형식이 갖춰졌다. 티베트 탕카에서 두루마리의 축을 사용하고 사방을 비단으로 꾸미는 것은 수당시기에 사용되던 비단 깃발인 표번(飄幡)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셰 교수는 돈황에서 출토된 같은 시기의 유물들과, 당시 티베트의 토번왕조가 70여 년 간 돈황을 지배했던 사실을 근거로 돈황에서 형성된 중국식 불교미술이 교역로 등을 따라 티베트로 전해졌다고 추정했다.

셰 교수는 "토번이 통치하던 시기의 돈황예술은 당나라 예술의 영향이 매우 강하며, 지리적으로도 인도와의 밀접한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탕카의 역사는 다양한 변화가 존재한다. 물론 이른 시기의 불화에는 인도미술의 영향을 받은 구도와 도상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티베트 불교와 중국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원대부터는 당시 중국의 청록산수와 중국불화의 모티프 등이 강하게 등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티베트 불교 미술연구에 있어서는 서양학계를 중심으로 주장된 인도-티베트 예술, 혹은 인도-네팔예술이라는 이론이 주류로 진행되어 왔다. 실제 티베트 불교의 도상체계는 인도에서 유래하는 것이 많으며, 티베트 불교 내부에서도 전통적으로 불화의 기원을 인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불교예술 작품들은 동인도 팔라왕조의 영향과 카쉬미르 지역의 작풍을 따르고 있다. 특히 불상에 있어서는 인도의 불상을 그대로 따라 조성하거나 수입하여 봉안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회화에 있어서는 더욱 다양한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셰교수는 이에 대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13세기부터 티베트의 불교회화는 인도보다는 네팔과 중국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쇠퇴한 화풍이 당시 티베트 탕카에서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셰 교수의 주장에 대해 동일한 시기 인도와 네팔과 인접한 곳에서 조성된 탕카는 중국화의 영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반박도 제기되는 등 학계의 토론이 뜨겁다.

키르기스스탄, 세계유산 불교 유적 공개

실크로드 위 진흙으로 만든 불교 사원


고대 불교 유적지 전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키르기스스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교유적에 대한 정비와 보존처리를 마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다. 지난 9월 1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키르키스스탄의 역사적인 불교유적지가 9월 중순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유적지는 2010년 네바켓(Nevaket)시의 크라스나야 레흐카(Krasnaya Rechka) 지구에서 발굴된 곳으로, 이곳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교역로 중 하나인 장안-천산회랑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이었다. 이 불교사원유적은 유네스코와 유럽연합(EU)의 공동 주관으로 복원됐으며 실크로드 전체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중국에 22곳, 카자흐스탄에 8곳, 키르기스스탄에 3곳이 있다.

고고학자 발레리 콜첸코는 "이 불교유적지는 진흙으로만 건축한 불교 사원이다. 드물게 벽돌을 쓴 부분은 사원 내에 봉안됐던 11m 높이의 와불이다. 불상의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벽돌로 뼈대를 세운 뒤 점토 같은 진흙을 덧붙여 세부표현을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오랜 세월 방치되고 훼손을 입어 현재는 와불의 완전한 옛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와불의 독특한 점은 벽에 가로막혀 와불의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점으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얼굴, 팔, 다리의 일부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실크로드 위의 고대유적지는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고대도시 유적도 3곳 있다.

도시유적 남쪽에 위치한 2곳의 작은 불교사원 외에 서쪽 교외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제단과 공동묘지, 도시유적 내부에선 네스토리우스교 봉헌석 등 당시 범세계적, 다민족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 경제적 교류 등을 엿볼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종교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상호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가 드디어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를 통해 실크로드가 단순한 교역로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 사상이 오간 길이었음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유적지가 공개되는 의의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백중기간 생겨난 다양한 에피소드 화제

스님들 고백, 다양한 공감 얻어



SNS를 통해 스님들의 경험담과 요령들이 공유되며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출처=트위터 캡처

일본 최대의 명절이자 불교행사인 백중 기간에 따라 일본 스님들의 다양한 경험담이 화제를 끌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사찰이나 가정에서의 천도재가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생겨났다는 반응이다. 9월 17일, 일본의 '마이도나 뉴스', '야후 재팬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의 백중 풍경을 전달했다.

음력에 맞추어 법회를 봉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양력에 맞추어 봉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력 7월 15일에 봉행하던 백중은 현대 일본에서 양력에 부합하는 8월 15일에 봉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추분을 전후로 하는 기간에도 천도재를 봉행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각 사찰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합동으로 천도재를 지내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각 가정에 불단이 모셔져 있는 관계로 스님이 신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불경을 독송하는 '다나교(棚經)'라는 풍습이 있다. 특히 다나교는 사찰이 재적 신도를 방문하고 사찰과 신도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나교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각 종단들도 다나교를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예전과 같은 모습들을 되찾고 있다.

한편 다나교에서 생겨난 에피소드들을 스님들이 SNS에 투고하면서 많은 신도들과 스님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스님들은 '종종 있는 스님들의 이야기, 2022년 백중'이라는 해시태그와 키워드를 이용해 각자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한 스님은 "일반적으로 백중기간에 신도분들로부터 먹을거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나교를 돌 때마다 제일 큰 아이스박스를 차에 싣지만, 항상 꽉 차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많은 스님들이 공감했다. 특히 농가가 많은 지역의 경우 "경을 외우는 동안 밭에 가서 바로 캐오시는 경우도 있다"는 스님의 경험담도 나왔다. 또 어린아이들이 스님을 보고 천진하게 행동하는 경험담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더운 날씨 속에 다나교를 이어가기 위한 요령들도 공유됐다. 장삼 안에 기능성 티나 아이스팩을 붙이라는 이야기나, 기도 중에 초가 꺼지지 않는 선풍기 각도 등 다양한 요령들이 공유되면서 스님들의 고충을 몰랐던 신자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한 신자는 "다시금 집에서 다나교로 스님을 모실 수 있어 기쁘다, 무더위 속에서 정성껏 기도해 주시는 스님들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엘론대, 모래만다라 선보여

관세음보살 화신 '녹색따라보살 만다라' 조성


상뽀 스님이 녹색따라 모래 만다라의 바깥 원을 채우고 있다. 사진출처=엘론대

미 명문 사립대 엘론대학교에서 8번째 모래 만다라를 선보여 화제다. 9월 16일 미 노스캐롤라이나 주 지역 방송국 'WFMY 뉴스'는 엘론대학교에서 8번째 모래 만다라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명문사립대학인 엘론 대학교에서 조성이 시작된 모래 만다라는 티베트 출신의 게쎄 상뽀 스님이 작업했다. 스님은 2003년부터 포교를 위해 미국으로 옮겨온 후 만다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티베트 불교문화를 알려왔다.

엘론대 누멘루멘 파빌리온에서 조성된 만다라는 깨달음을 위한 다양한 행동과 자비를 상징하는 녹색 따라보살 만다라로 이뤄졌다. 스님이 만다라를 조성하는 동안 방문객은 모래 만다라의 진행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스님은 3일간 매일 15시간 이상 동으로 만든 대롱과 특수도구로 미세한 모래알갱이를 정교하게 뿌리며 만다라 조성을 마쳤다. 스님은 "엘론대학 구성원을 위해, 또 일체중생을 위해 만다라를 조성한 공덕을 회향한다"고 전했다.

만다라는 대중에게 공개된 후 전통적인 해체의식에 따라 모두 파괴됐다. 스님은 진언을 외우며 모래 만다라를 쓸어내고 작은 항아리에 모두 담았으며, 일부는 축복의 의미로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 흩뿌렸다. 엘론대의 교목인 리처드 맥브라이드 목사는 "티베트 불교 미술 문화가 많이 개방되어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기쁘다"며 티베트의 불교문화가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